

이 자료는 2023년 11월 18일(토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서울특별시 동정자료



■ 매수 : 2매 ■ 사진 없음

웹하드(press.webhard.co.kr) ID/PW:press1

담당 :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	2133-6205	신문팀장	2133-6207	담당자	2133-6253
이준형		천세은		정수민	

오세훈 시장, 18일(토) 약자위한 최신기술 모은 '약자동행 기술박람회' 참석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(토) 오전 10시 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(아트홀 1관)에서 열리는 <2023 약자동행 기술박람회> 개막식에 참석, 개회사를 한 뒤에 기술박람회 부스를 둘러본다.
 - 약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'2023 약자동행 기술박람회'는 11.18.(토) 10~18시 ▲기조연설 ▲신기술 발표회 ▲기술기업 홍보쇼 ▲투자유치(IR) 경연대회 ▲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.
- 오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'약자동행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행사'라 강조한다. 또 앞으로 연구 개발(R&D) 지원, 기술동행 네트워크 등 약자동행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.
 - 아울러 박람회를 지속 발전시켜 '약자동행 신기술 발전의 장'이자 '네트워크의 장', 세계 웰페어 테크(Welfare Tech) 시장을 선도하는 '국제적인 박람회'로 성장시키겠다는 각오도 함께 전한다.
 - 개회사에 이어 오 시장은 김예지 국회의원, 요코하마시 종합재활센터 와타나베 신이치 부센터장의 기조연설을 청취한다.

-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신기술을 직접 체험·관람하고, 약자의 삶을 바꿔놓을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.
- 올해는 포스코(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미술작품 전시), SK텔레콤(음성 인공지능(AI)으로 문서를 찾는 ‘설리번 인공지능(AI)케어’ 등), 삼성전자(저시력자를 위한 TV 자체 기능 ‘릴루미노 모드’ 등), 네이버(돌봄 대상자를 돌보는 ‘클로바 케어콜’) 등 4개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, 스타트업 등 총 51개 기업이 참여해 신기술을 선보인다.

■ 박람회 방문 일정

일 정		내 용
개막식	10:30~11:20 (50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막 및 기조연설 - 개회사 : 오세훈 서울시장 - 축사 :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,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(영상) - 기조연설 : 김예지 국회의원, 와타나베 신이치 부센터장
전시 부스 라운딩	11:20~11:30 (10')	○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전시부스 라운딩

※ 관련부서 :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3팀장 임정민 ☎2133-9412